

경기안산국제학교 취소하고 그 자리에 공립형 대안학교 추진중



장윤정 의원, 경기안산1교 내국인·다문화 학생 위한 실질적 교육기관 되길 '당부'

안산 대부도 지역(단원구 대부남동 산126번지)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가칭)경기안산1교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

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3~24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심사에서는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남여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안산시와 경기도의 지원 계획의 구체화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로 설립하려 했으나, 학교 운영 방향과 골프, 요트, 승마와 같은 고급화된 교육 활동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교 설립의 최종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사진)

은 (가칭)경기안산1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사진) 의원은 “(가칭)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위한 통합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서·문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도와 예산 지원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안산 대부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관광객 편의 돕는 구봉도 재난정보 광고탑 구봉도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주차장에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광고탑이 등장했다.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하는 이 광고탑에는 연월일과 함께 현재시간이 실시간으로 제시된다. 현재 날씨, 온도, 습도 역시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오늘의 만조시간과 간조시간 그리고 각각의 바닷물 높이도 알려주고 있다. 구봉도를 찾은 관광객은 재난정보 광고탑을 참고하면 대부해솔길을 걷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54만여 명 관람객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지난해보다 19만 명 증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관람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21주년을 맞이한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시민과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사흘간의 여정을 마쳤다.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석중)은 지난 3~5일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54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만 명이 증가한 집계로 코로나19 이후 최대 관람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축제는 거리와 예술 그리고 시민과 도시를 잇고, 전 세대를 연결하며 안산시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

을 다시 한번 높였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 안산문화광장과 그 일대는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번 축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아마추어 시민 예술인들의 공연인 ‘시민버전’은 작년 대비 시민 공연단이 45개 팀이 더 늘어난 총 67개 팀이 무대에 올라 끼와 열정을 뽐냈다. ▲청소년 27개 팀 ▲3개 대학팀(서울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신안산대학교) ▲안산시 거주 외국인들로 구성된 11개 아마추어 공연팀 ▲26개 시민 아마추어 공연팀이 참여한 가운데, 세대와 연령의 경계 없이 함께 어우러진 거리예술의 장이 펼쳐졌다.

올해 축제는 공식 초청작 선정에

서도 변화를 꾀했다는 후문이다. 예술성을 강조한 어려운 해의 작품보다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거리극, 서커스, 무용,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구성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관객과 배우의 경계를 허문 자유로운 형식의 작품들은 거리극의 진수를 보여줬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됐다. 어린이들을 위한 ‘첨벙첨벙 물놀이터’와 ‘재미꿀롱 정글집’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함께한 부모들에게도 만족감을 선사했다. 청소년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이 만나보고 싶어 했던 크리에이터 보물섬과 잠골버스를 초청해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관광협의회 월례회의 경기해양안전체험관서 개최

9월에 있을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심도 있게 논의

(사)안산시관광협의회(회장 양운영) 2025년도 4월 월례회의가 4월 29일 오전 11시 경기해양안전체험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전체 회원 40명 중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회의 내용은 지난회차 회의록 설명과 오는 9월에 진행 예정인 제9회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운영의 건, 2025년 협회비 납부의 건이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항은 당연히 ‘제9회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운영’의 건이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부포도축제, 안산마라톤대회 등 3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중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부바다항기타마파크 잔디광장에서 출발해 대부해솔길 1-1코스 걷는 일정이다.

양운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요즘은 ‘안녕한가’라는 인사가 두렵다. 세태가 그렇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어 더욱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에 대부도저널을 창간했다. 지인과 함께 만들었다. 대부도저널은 대부도관광협의회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조언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회장은 “오늘 안전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육광심 고문은 축사에서 “시국이 그렇다 보니 정치문제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가장 타격을 입는 분들은 관광업을 하는 분이다. 대부도 소식 대부도저널 신문 통해 잘 접하고 있다. 대부도저널이 대부도를 넘어 안산 전

체로 번지면 좋겠다.”면서 “관광협의회가 하는 행사는 이제 회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 단합의 장으로 승화되고 있다. 행사의 처음출발은 300여명이었지만 지금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아졌다. 그러나 대부분 행사를 시가 주도한다. 앞으로는 협의회가 주도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육광심 고문은 또 “행사를 우리 주도로 가면 해가 갈수록 협의회가 발전하게 되지만 시가 주도하고 우리가 끌려가면 발전은 없다”며 “우리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이사들도 “우리가 행사를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기 위해 포도축제에서 포도를 팔 듯이 어촌계와 협의해 해산물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 회장 조부형

안산국제거리극축제, 2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수상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안산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지역축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시상식이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은 전문가 심사과 소비자 인지도 조사 등을 거쳐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브랜드를 부문별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200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21회를 맞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로서 대중성과 예술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민참여를 고루 갖춘 명품 축제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 소재 대학교와의 관학협력,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축제’라는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안산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지역축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윤성용 기자

이민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축제가 되도록 품격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안산

문화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거리공연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사)루씨최용신선생기념사업회 2025년도 15명 정기총회 개최

4월30일 한 대앞역 인근 산채정식에서

(사)루씨최용신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영덕) 2025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4월30일 한대앞역 인근 산채정식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15명의 이사 중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까지 모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정관개정, 신임이사 영입, 법인 발전방향 제언, 회원 확충의 건, 워크숍 일정 확논의 등이 상정됐다.

워크숍은 원주에 있는 펜션으로 고재석 이사의 협찬으로 진행되며 일정은 이사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6월 21일 토요일이 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크숍 일정은 이사들의 투표로 최종 정하게 될 전망이다.

김영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생업에 바쁘신데도 기념사업회 일원으로 지역의 뜻있는 봉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사님 회원님 감사하다”면서 “언제든지 서로 도우면서 밝은 마음, 미래 지향적인 의지와 열을 받들어 기념사업회의 공고한 대들보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석 이사들은 총회를 마치고 산채정식에서 점심을 함께 하며 반가운 인사도 나누고 여러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나누는 등 즐거운 만남을 이어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市, 화랑유원지 생태계 보호 위해 붉은귀거북 70여 마리 포획

향후에도 주기적인 퇴치 작업을 통해 토종 생물인 남생이 등을 보호하겠다

안산시는 이달 들어 화랑유원지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붉은귀거북 70여 마리를 포획·퇴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1년 붉은귀거북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퇴치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붉은귀거북은 한때 애완용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방사로 인해 야생에서 급속히 번식해 왔다. 이로 인해 토종어류 및 수생 생물과의 서식지 경쟁을 유발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

화랑유원지는 도심 속 생물 다양성

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453호인 남생이를 비롯해 다양한 수생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다. 하지만 붉은귀거북이 급격히 늘어나에 따라 남생이 등 다른 생물들이 서식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안산시는 생태교란종에 대한 적극적인 퇴치 작업을 벌인 결과 붉은귀거북 70여 마리를 포획·퇴치했다. 앞으로도 생태교란종 모니터링·포획을 지속 실시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고 토종 생물 보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향후에도 주기적인 퇴치 작업을 통해 토종 생물인 남생이 등을 보호하는 한편, 지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시는 이달 들어 화랑유원지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붉은귀거북 70여 마리를 포획·퇴치했다고 밝혔다. 정희재 기자



(사)루씨최용신선생기념사업회 2025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4월30일 한대앞역 인근 산채정식에서 개최됐다. 김태창 기자

본사방문 감사합니다



△임유정 안산단원경찰서
△이종신 풍도노인회장
△유재용 황금토목측량설계사무소장
△김영덕 사단법인 루씨 최용신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대표 유재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TEL. 032.886.1817 M. 010-3433-4635



측량(경계, 현황, 분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입목조사, 입목벌채허가, 복구설계, 재해위험성 검토) 형질변경, 토목설계(토목4구조계산), 토목시공(매립, 보강토, 옹벽, 토지 절, 성토) 도로 점 사용허가, 사도개설, 성장관리 계획구역 검토 및 자문, 각종 민원처리

민주당 안산시병 지역위원회 대부동협의회 발대식

대부동 방아머리 소재
어반아일랜드 세미나실
박해철 위원장 등
당원 100여명 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병 지역위원회(위원장 박해철 국회의원) 대부동협의회 발대식이 2일 오후 5시 대부동 방아머리 소재 어반아일랜드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부동협의회 발대식에는 대부동지역 당원 및 시·도의원과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강태형·김철진·이기환·이은미 도의원과 박은경·박은정·선현후·송바우나·황은하 시의원, 김동수·나정숙 특별보좌관 등 시·도의회이전원 참석하고 전 시의원 2명도 특별보좌관 자격으로 참석해 발대식을 빛냈다.

박해철 위원장 겸 국회의원은 축하

에서 “저는 대부도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대부도에 이렇게 많은 분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박상수 대부동지역위원장의 노고가 크다”고 치하했다.

박 의원은 또 “오전에는 도의원 4명과 시의원 5명 등 9명의 시·도위원을 모두 데리고 풍도에 다녀왔다며”며 “풍도의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애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열심히 하겠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명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대부동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박상수 해신마린 대표가 임명됐다. 이어서 부회장과 자문위원, 고문, 특별위원장의 임명과 위촉식이 진행됐다.

박상수 대부동지역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부도가 민주당 당원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병 지역위원회 대부동협의회 발대식이 2일 오후 5시 대부동 방아머리 소재 어반아일랜드 세미나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시·도의원 소개와 부회장단 및 자문위원, 고문단의 소개가 이어졌다.

발대식을 마친 당원과 당직자들은 저녁을 함께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시의회 박태순 의장, 성포고도박근절주간 등굣길 캠페인 참여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사진 세번째)이 1일 오전 성포고등학교에서 진행된 '도박 근절주간 등굣길 캠페인, 학교폭력·도박 stop! 안전하고 행복한 성포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태창 기자

1일 성포고 정문서 실시된 캠페인서 학생 도박·학교폭력 근절 피켓 활동 벌여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1일 성포고등학교에서 실시된 '도박 근절주간 등굣길 캠페인, 학교폭력·도박 stop! 안전하고 행복한 성포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행사에는 박태순 의장 외에도 성포고등학교와 안산교육지원청, 상록경찰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성포고등학교를 찾은

박태순 의장은 학교 정문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박 근절과 학교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울러 캠페인 후에는 참석자들과 성포고등학교 교정을 둘러보며 학교시설을 파악하기도 했다.

박태순 의장은 “학생 도박을 비롯해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갇아먹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지역 각계가 인식하고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의회도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선주민·이주민 통합방안 마련중

‘너와 나의 연결고리’ 추진 제2차 간담회 8일 개최 대표의원에 황은화 의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갖고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사회적 통합 연구라는 과제 심화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의 황은화 대표 의원과 유재수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단체에 새로 합류한 송바우나 의원이 참여했으며, 시 외국인주민행정과 관계자들과 민간전문가 등도 배석해 연구 수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연구 주제가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선주민 및 이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정책 연구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언어와 일자리, 문화, 여가 등 세부 분야를 정해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더욱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 별로 맞춤형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

놔다. 의원들은 이날 협의된 내용들을 연구용역 등에 반영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연구 수행에 성실히 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황은화 대표의원은 “안산시는 다양한 상호문화 정책과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며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융합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단체가 중심이 돼 실질적인 사회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말 열린 2025년도 제2차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과제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정책개발비 지원을 의결 받은 바 있다.

김태창 기자

시의회 운영위원회

9일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가 김태훈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일 실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채택된 실시계획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9일 오전 10시에 의회 제2상임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것과 요구 자료 및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시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 등이 담겼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 새시대 영농조합법인 탄소 꽃이끼 재배 팀 일동



말부흥노인정 어르신 어버이날 맞아 뷔페음식으로 점심대접

새롭게 이사 온 주민 부부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대부도의 끝자락 말부흥 주민과 어르신 약100여명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말부흥노인정 앞 마당에서 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뷔페음식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어버이날을 맞이했다.

말부흥노인정 안종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버이날을 맞아 더욱더 건강하시고 단합된 마음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서 25년도부터 새롭게 마을업무 보는 임기만 통장도 “마을에서 준비한 음식을 오늘은 마음껏 드시면서 하루를 보내자”고했다.

또한 이날은 말부흥에 5월2일날 새롭게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말부흥으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주민으로 소개를 하는 시



대부도의 끝자락 말부흥 주민과 어르신 약100여명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말부흥노인정 앞 마당에서 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뷔페음식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어버이날을 맞이했다. 윤성용 기자

간도 가져 훈훈함을 더했다.

이사를 온 부부는 주민으로서 이곳 말부흥을 오게 된 사연을 간단하게 이야기 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대

부도를 한 달 넘게 이곳저곳을 검토하다가 정이 넘치고 조용한 이곳 말부흥으로 오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은 마을 어른들이 하나같이 자

리에 앉아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나누며 못 다한 옛날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남동 소재 중부흥경로당 어버이날 행사

최광덕 회장, 즐거운 하루 우리 모두 만들자 '당부'

대부남동 소재 중부흥경로당(회장 최광덕)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경로당 안방에서 진행된 이날 어버이날 맞이 행사는 중부흥부녀회(홍복주)와 12통(통장 최순철)이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낚지무침, 양념계장, 잡채, 수육, 음료수, 과일 등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경로당 회원 80여명과 주민 등 100여명 넘게 경로당을 다녀갔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겼다.

최광덕 경로당 회장은 “날씨도 좋은데 음식도 맛있다”면서 “오늘 하

루 맘껏 드시고 즐겁게 놀다 가자”고 말했다.

홍복주 부녀회장과 12통 최순철 통장은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음식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때신지 모르겠다”며 “음식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더 달라고 해달라”고 말했다.

본지 양운영 회장도 중부흥경로당을 방문해 오늘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과 축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맛있게 점심을 들고 음향시스템에 맞춰 노래도 몇 곡씩 부른 경로당 회원들은 주최측에서 준비한 수건을 하나씩 들고 즐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논밭으로 옮겼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남동 소재 중부흥경로당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안방에서 맛있는 점심을 들며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김태창 기자

통기타그룹 토야프렌즈 공연 “사랑의열매 모으기 버스킹 100회”

5월 5일 어린이날 맞아 바다향기수목원에서 펼쳐

통기타그룹 ‘토야프렌즈’가 경기 공동모금회와 함께 ‘2012년 시작한 사랑의 열매 모으기 100회 버스킹공연’의 100회차 공연이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대부도 선감동 소재 바다향기수목원 잔디마당에서 펼쳐졌다.

토야프렌즈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꽃과 싱그러움이 가득한 수목원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불러주며 모두와 소통하는 추억의 노래선물과 공동모금회에서 제공한 사랑의 열매를 비롯한 연필과 네임택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날 공연은 대부지역 문화예술단체인 솔내음문화예술단의 축하 현수막과 경기 공동모금회(회장 권인옥)의 축하를 배경으로 무대를 꾸며 100회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앞서, 토야프렌즈는 2012년 경기 공



통기타그룹 ‘토야프렌즈’가 경기 공동모금회와 함께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대부도 선감동 소재 바다향기수목원 잔디마당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 좌로부터 이찬수, 임은미, 조기열이다. 윤성용 기자

동모금회와 ‘사랑의열매 모으기 100회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관람객에게 사랑의열매 배지를 무료로 나눠주는 공연을 100회 진행하는 내용으로 오산 물향기수목원, 경기도청벚꽃축제,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등 도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자선공연을 이어 왔

으며 드디어 100회 목표를 이루게 된 것이다.

토야프렌즈는 향후 계획으로 “그간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소중한 마음을 전해준 관람객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공연장을 제공하고 협조해준 관계자들 덕분이었다”고 말했

다.

한편 토야프렌즈는 2025년 하반기부터 경기 공동모금회와 함께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수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서 음악동호인들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버스킹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큰언덕 배드민턴클럽’ 창단식 및 신장수 회장 취임식 가져



‘큰언덕 배드민턴클럽’ 창단식 및 신장수 회장 취임식이 26일 오전 10시 대부중·고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태창 기자

희생과 배려 이해와 사랑을 추구하는 ‘큰언덕 배드민턴클럽’ 창단식 및 신장수 회장 취임식이 26일 오전 10시 대부중·고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창단식 및 회장 취임식에는 본지 윤성용 대표이사와 김동하 대부중·고 교장, 임성훈 대부중·고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귀빈과 클럽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26일 오전 10시 부터 대부중·고 체육관에서

김동하 교장은 축사에서 “체육관 폭이 좁아서 미안한데 앞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서 “배드민턴 클럽이 운동을 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임성훈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창립식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 건강하게 생활하길 기원한다”고 짧게 말했다.

본지 윤성용 대표도 축사를 통해 “우리는 대부도저널이라는 신문을 가지고 있는 만큼 큰언덕 배드민턴 클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나부터 큰언덕 클럽에 가입해 여러분과 함께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어서 조대 회장에 취임한 신장수 회장의 임명장 수여가 있었고 임명장을 받은 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가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우리모두 노력해 클럽을 활성화시키자”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우리 클럽은 커나가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오늘까지 행사를 위해 준비해준 회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모두 26명의 회원으로 출범하는 ‘큰언덕 배드민턴클럽’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대부중·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게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탄도수산물직판장 대수선공사 안전지원제 가져

7일 1층 화센터에서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탄도수산물직판장 대수선공사 안전지원제가 7일 탄도수산물직판장 1층 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안전지원제에는 진수훈 탄도어촌계장, 박옥순 탄도마을 부녀회장, 유금순 탄도어판장 운영위원장, 한원중 일광E&C(주) 소장, 장일수 탄도노인회 회장, 김성연 탄도 19통장, 수산물직판장 운영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탄도수산물직판장 대수선공사는 8일부터 시작되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당분간 직판장 영업은 주차장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야외 화센터 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새롭게 단장될 탄도수산물직판장은 대수선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현재의 2층은 그대로 활용하되 1층에 건어물판매대를 추가하고 2층에는 전망 좋은 커피숍도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뉴딜300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대수선사업은 일광E&C(주)가 맡아서 공사하게 되고 모두 32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탄도수산물직판장 대수선공사 안전지원제가 7일 탄도수산물직판장 1층 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대한축구협회 주최, 2025 안산시 i-League 개막

4월 26일 1라운드 개막
10월 18일까지 8라운드
유·청소년 축구리그 개최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안산시체육회(회장 이광종)가 주관하는 2025 안산시 i-League 대회가 4월 26일(토) 안산호수천연잔디구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라운드 리그가 진행됐다.

2025 안산시 i-League 대회는 안산 지역 클럽 선수들뿐 아니라 안산 인근 수원, 시흥, 화성, 군포, 용인, 의왕 등 6개지역 클럽 총 48개팀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총 8라운드 동안 리그대회를 진행한다.

초등부 U-8, U-10세부 경기는 6인제로 안산호수천연잔디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며 초등부 U-12세부 경기는 8인제로 신도시호수운동장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초등부 U-8, U-10, U-12세부는 부별 16개팀이 참여해 2개조로 편성, 1라운드 ~ 4라운드 조별리그전을 통해 5라운드 ~ 8라운드부터는 상위 8개팀, 하위 8개팀이 편성되는 스플릿 시스템을 적용, 비슷한 실력의 팀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안산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5 안산시 i-League 대회가 4월 26일 안산호수천연잔디구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라운드 리그가 진행됐다. 김태창 기자

끼리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참가학생들에게 축구에 대한 동기부여와 재미를 제공한다.

또한 축구경기 외에도 각종 문화체험 부스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문화체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개막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박태순 안산시의회위원장, 박해철 국회의원, 김원덕 안산시축구협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각 지역에서 참여

한 축구 꿈나무 선수단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이민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축구꿈나무 선수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상대 선수에 대한 배려, 팀을 위한 협동, 지도자와 심판에 대한 존중 등 건강하고 올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승패와 상관없이 선수들이 흘린 땀과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 달

라”라고 당부했다.

i-League는 풀뿌리 축구 저변확대와 유청소년 클럽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출범했고 안산시체육회는 공모를 통해 2013년 ~ 2025년까지 12년째 i-League를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 지역 대남초·대동초·대부초 ‘한마당 축제’로 하나 된다

함께 뛰고! 함께 웃는
한마당 축제 화려하게 개막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은 2일 대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29년 3월 통합이 예정되어 있는 대부초·대남초·대동초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마당 축제’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관심과 지원, 대부초·대남초·대동초 학교관리자, 교직원, 학부모의 긴밀한 협력과 헌신적인 노력 속에 기획되었고, 특히, 세 학교 교장단이 학생 중심의 통합 분위기 조성, 공동체 화합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및 학부모 간 협력 기

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직접 발로 뛰며 준비해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년과 학교의 구분 없이 팀을 이루는 협동 게임, 통합 릴레이, 줄다리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종목도 포함되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김수진 교육장은 “학생들 간의 우정과 배려, 학부모와 교직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축제가 세 학교가 하나 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와 함께 발맞추며, 안정적이고 따뜻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2일 대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29년 3월 통합이 예정되어 있는 대부초·대남초·대동초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재)안산시청소년재단 2025 안산시 청소년예술제 개최

참가 청소년예술가 모집

(재)안산시청소년재단은 오는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5 안산시 청소년예술제’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예술가들이 끼를 발산하고 소통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관내 초등(3학년 이상)·중등·고등학생 및 학교 밖청소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025 안산시 청소년예술제는 ▲음악(한국음악 성악·기악, 서양음악 합창), ▲무용(한국무용 독무·군무, 외국무용 독무·군무), ▲문예(문학 시·

산문, 숏폼), ▲사물놀이(사물놀이 앞은반, 농악 선반), ▲대중문화(댄스, 보컬, 밴드)로 5개 분야 14개 종목으로 운영된다. 종목별 경연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음악, 무용, 사물놀이, 대중문화 분야 예선은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문예 분야는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종목별 대상 수상자는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등에서 열리는 제33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에 안산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중·고등부가 통합된 종목은 대상 및 최우수상까지 총 2개팀에 자격이 주어진다. 이선화 기자

(재)안산문화재단, 시민모니터링단 ‘컬처 다이브’ 활동 시작



안산문화재단이 25일 시민모니터링단 컬처 다이브 1기 발대식을 열었다. 김태창 기자

12명의 모니터링 단원
5월부터 본격 활동 시작

(재)안산문화재단은 2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회의실에서 ‘2025년 안산문화재단 시민모니터링단 컬처 다이브 1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시민모니터링단 <컬처 다이브>는 “문화예술(Culture)에 뛰어들다(Dive)”라는 의미로, 안산문화재단의 문화행사를 경험하며 사업에 대해 잘된 점, 개선할 점 등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오는 5월부

터 10월까지 6개월간 월 2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극장 보노마루 기획공연과 김홍도미술관 전시, 지역 밀착프로그램,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 재단의 사업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현장 평가표를 통해 나눌 예정이다.

(재)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대의 모니터링 단원들의 의견이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세무사 최욱진

최적의 세무사, 최상의 경력과 경험

국세청 32년 경력

조사 14년 / 감사 8년
세원관리 6년 / 불복업무 등 4년

퇴직 전 5년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퇴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팀장
안양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201호 (본오동, 보노피아빌딩)
(TEL) 031-8042-6670 (FAX) 0507-1799-3480
(E-MAIL) cujtax0522@naver.com

고객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핵심업무에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성장하는 세무 도움**

- 매입·매출 정리 등 장부 가장 대행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대행
- 직원 급여 관리 (4대보험 등)
- 경영 컨설팅 (세액 감면 / 공제)

☑ **재산 이전 고민해결 컨설팅**

- 양도 / 상속 / 증여
- 사전 증여 등 부의 이전 컨설팅
- 주식 이전 (주식 평가 등)

☑ **역올한 세금 해결하는 불복 업무**

- 고지 전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고지 후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납세자 고충 (민원신청)

☑ **조사 등 세무간섭에 대한 대응**

- 세무조사에 대한 업무 대행
- 과세자료 해명 요청에 대한 대응
-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경정청구)

백운동 주민자치회, 백운동 환경정비 실시



단원구 백운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일 주민들이 즐겨 찾는 백운동 산책로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비 활동은 지난해 철쭉꽃을 식재한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및 잡초 제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백운동은 지역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위해 즐겨 찾는 도심 속 쉼터이자 주민자치회 주관의 '세대공감! 맨발의 청춘' 등 자치계획 사업 주요 행사 장소로, 지난해 타지역 벤치마

킹을 통해 철쭉꽃 식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고정근 백운동 주민자치회장은 "백운동에 향후 유명한 철쭉꽃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매년 환경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백운동장은 "이번 환경정비를 통해 백운동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본오1동 직능단체, 어버이날 맞아 따뜻한 나눔



상록구 본오1동 통장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4개 단체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7일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4개 단체는 각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전달하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이순자 통장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최현규 지사협 위원장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만 본오1동장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범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나누GO나눔愛, 본오3동에 수제 카네이션 후원



상록구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는 7일 본오3동 소재 나누GO나눔愛 봉사단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수제 카네이션과 미니효자손을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나누GO나눔愛(대표 정원숙)는 2018년 1월 안산 시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모인 사람들로 이뤄진 봉사단체다.

정원숙 나누GO나눔愛 대표는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길 바라며 고맙고 열심히 만든 마음까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홍 본오3동장은 "찾아오는 이들이 적어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따뜻한 이웃의 정과 마음을 나눠준 나누GO나눔愛 봉사회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본오3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윤영 기자

사동, 제12회 어린이날 축제 '마을에서 놀자!'성료



상록구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제12회 어린이날 축제 "마을에서 놀자!"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동 행정복지센터, 사동 주민자치회, 감골주민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또한 환경을 고려해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고자 그릇 대여 부스를 운영해 더욱 의미 있는 축제가 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체험행사는 ▲미니 컵카네이션 ▲포도키링 ▲페이스페인팅 등 아이들의 창의

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됐으며, 놀이부스는 ▲미니올림픽 ▲방탈출 ▲숫자뽑기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영임 사동 주민자치회장은 "함께 축제를 만들어준 이웃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줄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자영 사동장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마을이 함께 만드는 어린이날 축제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흥전기안전협의회, 선부1동에 재능기부



단원구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9일 안산시흥전기안전협의회에서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활동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활동은 전기기사 회원들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전기안전 점검 및 LED 전등과 노후 차단기를 교체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줬다.

안산시흥전기안전협의회는 전기안전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안산시와 시흥시 내에서 교육, 무

료 안전 점검, 노후 설비 교체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삼수 안산시흥전기안전협의회 회장은 "작은 노력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은혜 선부1동장은 "지역사회에 봉사해 주신 안산시흥전기안전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선부1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윤영 기자

선부3동 지사협, 어버이날 사랑의 카네이션 전달



단원구 선부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버이날을 맞아 7일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 50가구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비누꽃 카네이션과 라면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카네이션은 지사협 위원들이 지역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들었다.

카네이션을 받은 한 어르신은 "가족들이 있어도 찾아오지 않아 적적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카네이션까지 챙겨주니 감사한 마음"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정화 지사협 위원장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드리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니 지역사회 전체가 훈훈해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꾸준히 나눔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혁 선부3동장은 "어버이날에 관내 홀몸 어르신을 위한 행사에 참여해 주신 지사협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관내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카네이션과 라면을 받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25년 경력 간판 제작 설치 전문업체

Led채널. 특수제작간판. 썬팅. 현수막. 명함. 판촉물



미래기획

대표 이병철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3(대부북동) ☎ 010.9366.9699

민주당 안산시병 박해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풍도 주민과 간담회 가져 5월2일 풍도 주민들의 애환 들어주는 시간 갖고 풍도 발전 도모 논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은 약 1.84㎢ 면적에 2024년도 기준 105명(57가구)이 거주하고 있다.

바로옆의 부속섬 육도에는 인구40명이 거주하며 풍도·육도 포함, 약 160여 명이 살고 있다.

풍도로 가는 여객선은 주로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평일에는 1회, 공휴일에는 하루 2회가 운행된다.

요금은 편도기준 12,000원이고 1일 주차료는 5,000원이다.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박해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안산시의원과 당원 등이 풍도를 다녀왔다.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풍도까지 유람선으로 거리는 약2시간 정도 소요된다.

풍도는 조용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이나 주말 여행지로 적합하다.

풍도는 대한민국에서 봄철 야생화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트레킹과 낚시를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섬이다. 섬 안에서는 식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개인 식사는 미리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객선 시간표와 예약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서 가고 부녀회에서 준비한 민박집에서 쉬고 나오면 된다.

풍도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저런 불편한 사항들을 직접 들어보겠다고 더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병 박해철 국회의원 직접 나섰다.

우리도 행보에 맞춰서 함께 했고 경기도의원 및 안산시의원들까지 한꺼번에 많은 정치인들이 움직였다.

풍도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였다.



5월2일 박해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및 민주당 안산시병 주요 당직자들이 풍도를 방문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풍도를 찾은 것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4명, 시의원 5명, 전 시의원 2명 등 총 12명의 전·현직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풍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부해양본부 백종선 본부장이 이미 발표했듯이 안산시로부터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풍도란 섬이 이번 기회에 좋은 이미지로 살기 좋은 풍도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른 아침에 방아머리 선착장 앞 식당에서 동승하는 인원이 많아 2군대 식당으로 나누어 대부도의 대표음식

인 바지락칼국수로 맛있는 아침을 해결했다. 이번에 안산병 박해철 국회의원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박해철 국회의원은 안산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치인이 맞는 것 같다.

민생만 생각하는 의정활동에 언론이 주목한 실력파다.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고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안산시도 많은 의정활동이 있지만 그동안 소외된 이곳 대부도와 풍도도 더 많은 눈길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출발시간에 맞춰서 개표를 하고 방

아머리 매표소에 나온 지역주민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서해누리 대표와 방아머리 선착장의 이용 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해누리호 여객선에 몸을 싣고 의자에 앉았는데 풍도 노인회장과 풍도 주민들과 인사 속에 1차적으로 풍도의 현황을 듣게 된다.

드디어 풍도에 도착했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이미 마을회관 앞에 박해철 국회의원과 일행을 반겨주는 주민들의 표정이 아주 행복해보였다.

풍도 주민들의 환대 속에 약1시간 정도 풍도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시간을 갖고 풍도 발전소, 풍도 보건소, 풍도 노인정, 폐교가 된 풍도초등

학교, 풍도 둘레길과 마을전체를 둘러보기로 했다.

먼저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 기념사진도 남겨 보고, 이어서 미리 준비한 점심을 먹고, 풍도란 섬에서 잡아올린 해산물로 점심시간이 진수성찬이 되었다.

이제부터 현장답사를 하는 시간이다. 나는 이 시간에 나의고향에 온 것처럼 너무나 정겨운 시간들이었다.

검게 그을린 아버님, 어머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정겹고 갑자기 나를 보고 싶어졌다.

풍도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항상 건강하라고 덕담도 나눠주고 살기 좋은 풍도를 만들겠다고 약

속했다.

풍도주민들이 크게는 7가지 현황들을 부탁했는데 아마도 빠른 시간에 직접 움직여서 알찬내용이 나올것로 기대된다.

이날은 풍도동의 통장과 어촌계장이 풍도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간곡하고 당부를 했다. 풍도는 그동안 풍도전체가 지목 변경이 안되어서 국가 공식 과출소, 한전, 보건소를 빼고 나머지 가구는 자연적으로 구조적으로 불법건축물 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도 빠른 시간에 지목변경과 풍도주민들의 애환이 많이 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옛날의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도 이번에 교육청에서 안산시로 이관을 하는데 안산시에서 잘만 활용한다면 관광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것로 믿는다.

풍도에는 약500년 이상 수령의 은행나무가 있어 이것 또한 잘 관리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이다.

또 하나 빠지면 안 되는것이 풍도는 산세가 높지 않아서 조금만 관리를 잘 한다면 국민들의 건강 트레킹코스로도 유명세를 탈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풍도는 국내최대의 야생화 단지이다. 예전부터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진동호인들이 많이 찾기도 하는데 야생화를 관리하기위해서 많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섬 풍도주민들이 앞으로 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단체로 기념사진을 남기고 짧은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웅진군, 섬 주민 생활안정과 환경보호 적극 나서

연안여객터미널 및 각 섬 선착장 4대 캠페인 연장

웅진군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섬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근절 및 지역 소비 늘리기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연안여객터미널과 각 면 선착장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을 다음 달(6월 5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웅진군은 모든 섬에 인천 i-바다패스가 시행되어 봄철부터 관광객이 증가하는 수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무단 입산물 채취나 불법 해루질 활동이 섬 주민의 생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이 필요했고, 저렴한 여객선 비용이 섬에서의 소비로 이어져 섬의 경제가 활기를 띠고, 섬 경제 회복만큼 관광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켜 모두가 깨끗하게 공유하는 캠페인 내용을 홍보했다.

군은 연장기간동안 터미널과 각 면



웅진군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섬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근절 및 지역 소비 늘리기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연안여객터미널과 각 면 선착장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을 다음 달(6월 5일)까지 이어간다.

김태창 기자

바다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수막, 피켓,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입산물 무단 채취 근절 ▲불법 해루질 근절 ▲쓰레기 섬에서 되가져가기 ▲관광객 섬 지역 소비 늘리기 등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SNS, 전광판, 전자배너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캠페인 연장을 통해 불법 근절과 섬 소비를 늘려

지속 가능한 섬 관광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광객과 섬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깨끗하고 활기찬 웅진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 숙원사업 “장봉도-모도 연도교” 연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4개섬 연결

웅진군은 30일, 장봉도 - 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의 4개섬으로 구성된 북도면은 현재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사업으로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가칭)신도대교가 건설됨에 따라(2026년 1월 개통이 예정) 기존 연도교로 연결되어 있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약 1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북도면에서 가장 큰 섬인 장봉도는 연도교가 건설되어 있지 않아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대교가 개통되어도 주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웅진군에서는 2011년 7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장봉도 - 모도 간 연도교 건설을 포함시킨 이후 연도교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2017년 10월 장봉도 - 모도 간 연도교 건설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바 있었다.

웅진군에서는 이후에도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앙부처에 장봉도-모도

연도교의 건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사업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안을 도출(B/C=1.01)하여 마침내 이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는 웅진군 북도면의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1.8km의 2차선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85억원으로 예상된다.

장봉도 - 모도 연도교가 건설될 경우 북도면 4개의 섬이 모두 연륙되고 동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며 관광산업 발전과 각종 지역특산물의 생산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북도면사무소와 장봉출장소로 이원화된 북도면 행정의 통합으로 30년간 약 520억원의 행정비용 또한 절감되는 등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전 북도면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아직 연도교 건설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인천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장봉도-모도 연도교가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과정들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은 30일, 장봉도 - 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웅진군, 대이작도 명소화 만들기 위해 사업 박차

‘폴등’ 대표적인 자연경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웅진군은 자월면 대이작도를 매력적인 섬 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이작도는 간조 시 모래톱이 섬처럼 드러나는 ‘폴등’이 대표적인 자연경관으로, 지난 2004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영화 ‘섬마을 선생’의 촬영지로 유명하며, 갯티길과 해안 산책로 등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국내 최고령 암석을 보유하고 있어 ‘머무는 곳이 작품이 되는’ 섬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은 관광콘텐츠 확충과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섬 관광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민여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웅진군은 대이작도 특산물인 우무를 활용한 디저트 상품화 등 먹거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대이작도의 이야기와 트레킹 코스, 공원 등을 접목한 ‘이야기 걷기 축제’를 개최하고, 관광객 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대이작도 홍보마케팅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대이작도 명소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웅진군 관계자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사업으로 섬 방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을 통해 섬 관광의 질



웅진군은 자월면 대이작도를 매력적인 섬 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윤성용 기자

적인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확충과 수용태세 개선으로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생태적인 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해병대 선후배님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해병대 신입대원을 찾습니다

대부전우회 회장 최영휘 010-3755-5859

대부전우회 사무국장 임준채 010-3731-4754

레저보트매니아 회원 14명 영덕 노물항 피해복구 자원봉사

4월 26일 어업인 회관과 경로회관 건물 청소 봉사

레저보트매니아 회원들이 지난 4월 26일 영덕 노물항으로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이날 자원봉사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덕 노물항 어민들을 돕기 위해 매니저를 포함해 14명의 회원들이 나섰다.

마을 어촌계장과 면담을 한 후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덕 노물항을 목적으로 하고 어업인 회관과 경로회 관 건물의 내·외부 청소를 진행했다.

특히 어업인회관의 외벽은 화재로 인한 그을림이 심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고압 살수 분무기로 고압세척을 진행했다.



레포트매니아 회원들이 지난 4월26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덕 노물항 어민들을 돕기 위해 매니저를 포함해 14명의 회원들이 영덕 노물항으로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윤성용 기자

두 건물의 청소를 완료한 후 산불피해복구 노물항어촌계에 산불피금성금으로 350만원을 전달하고 추후 레저보트매니아 노물어촌계는 자매결

연을 맺기로 협약했다.
이어서 영덕군청에도 150만원의 성
금을 전달했다.
레저보트매니아 회원들은 단순한

동호인들로 결성하여 산불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하며 하루일정을 마무리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학생 중심 교육 교류 또 통했다**

“카자흐를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삼아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현지 시각) 카자흐스탄과의 교육 교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 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은 다문화 학생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한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학생 중심 교육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임 교육감은 현지 시각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카자흐스탄의 교육 기관과 대학을 찾아 경기 다문화 교육정책과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의' 성과를 제안하는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아바이사법대의 원어면 교사 교류, 현지 학생의 한국에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온라인 학교 소개, 과학고등교육부, 대학과의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교육이 중앙아시아로 확장하는 교육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

임 교육감은 첫 일정으로 지난 22일 얼마머리한국교육원을 방문해, 중앙아시아 내 한국어 열풍 현장을 확인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지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온라인 학교와 교재를 소개하고, 상호 교류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 23일에는 아바이국립사범대학을 방문해 카지흐스탄 추천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다문화·귀국 재외동포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쉽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원어민



김동연 지사, 노동절 맞아 경기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부여



김동원 지사가 지난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노동절을 맞아 경기도 전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창 기자

“노동가치 존중과 노고 격려” ‘근로자의 날’ 보상 차원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타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
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
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

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 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3·'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노동절(5·1)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심속의 힐링 장소!!

남녀노소 편안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

등대바다낚시터, 대부바다낚시터,
독도바다낚시터, 어심바다낚시터,
하늘바다낚시터, 해솔바다낚시터,
서해바다낚시터, 케이쓰리바다낚시터

안산지부



사단법인
한국바다낚시업연합회

안산시 반달섬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Lagoon)인테라스 1차’ 6월부터 입주 개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Lagoon)인테라스 1차’(이하 라군인테라스 1차)가 오는 6월부터 입주를 순차 개시한다. 이번 입주주로 총 2,554실 규모의 새로운 거주 수요가 반달섬에 유입되면서 지역 상권과 해양레저 인프라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라군인테라스 1차는 올 4월말 준공됐고 시로부터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오는 5월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주거형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주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용도변경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당시 국토부는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용도변경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신규 분양하는 생숙의 경우 숙박업으로만 분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당시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조치에 따라 경기도와 안산시는 발빠르게 움직였고 이번에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1차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된 것이다.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1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8개동, 총 2,554실로 조성된 초대형 복합단지다. 전용면적은 97~142㎡로 설계돼 다양한 수요를 창출한다.

모든 호실이 남향 배치·시화호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전 실에 개방형 ‘라군뷰’ 테라스를 적용해 일조권과 탁 트인 전망을 극대화했다.

총 2,554실 규모의 새로운 거주 수요가 반달섬에 유입되면 지역 상권과 해양레저 인프라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Lagoon)인테라스 1차’가 오는 6월부터 입주를 순차 개시한다. 이번 입주주로 총 2,554실 규모의 새로운 거주 수요가 반달섬에 유입되면서 지역 상권과 해양레저 인프라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사진은 야간에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1차를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이다.

등과정까지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춘다.

이로써 입주주민은 학군 수요를, 지역 상권은 학부모 소비를 흡수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 된다.

이에 대해 반달섬에 소재한 대동부동산 양금순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수분양자들이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며 “앞으로 송산그린시티와 연결되는 도로까지 준공되면 송산서죽지구와 함께 반달섬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대표는 “반달섬 전체 7천500여 세대 중 이미 4~5천 세대와 상가 100여 곳이 들어와 있는 만큼 이번에 라군인테라스 1차까지 입주가 시작되면 이제 반달섬 활성화 바람은 본격화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군(Lagoon)은 바다와 육지 사이에 형성된 얇은 물웅덩이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모래톱이나 산호초에 의해 바다로부터 분리된 지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 나, 다, 라의 라군이 아니다.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군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동해안에는 화진포, 송지호, 경포호 등 여러 라군이 존재하며, 이곳에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

일부 문헌에서는 라군과 하구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두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도 많다. 라군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특정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호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인 라군 지역은 대체적으로 관광지로 유명하다.

반달섬의 라군(Lagoon)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4회-하] 철새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2012년 2월말 퇴직을 하고 2013년 3월부터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2017년까지 6년간 ‘대부도 마을 이야기 조사’와 ‘대부도 옛 지명 지도 그리기’를 추진하던 중 대부도 출신 신정웅 교장 선생님과 정성구 사진 클럽 회장의 도움과 자문을 받게 되었다. 신(申) 교장은 대부초등학교와 인천(仁川; 京仁)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동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대부도의 평산(平山) 신씨(申氏) 집성촌(集姓村) 행사(行祀)에 많이 다녔다. 정 회장은 대부도 구석 구석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래서 두 분은 이 섬의 지리(地理)에 누구보다 밝고 인맥(人脈)도 매우 넓었다.

신 교장 선생님께서 섬마을 선생님이 노래 배경지인 대남초등학교는 “대부도 관문인 진두(津頭)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하여 근무를 희망하지 않았다고” 했다.

요즈음의 대부도 남3리는 시화방조제를 통하여 언제든지 육지를 오갈 수 있지만, 1960년대 대남초등학교는 교



1960년대 철새따라 찾아온 총각선생님 근무 당시 대남초등학교 보리밭기 지원 모습.

통 사정이 너무 나빠 육지(陸地)에서 정말 오가기 힘든 머나먼 곳이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태어났을 총각 선생님들이 대남초등학교로 발령받아 출렁이는 동력목선(動力木船)을 타고, 인천부두→옹진군 영흥도→화성 마산포→대부도 진두선창까지 2~3시간 걸려야 도착했다.

그리고 또다시 진두(津頭)에서 남3리(南三里)까지 가려면 일용(日用)할 생활용품(生活用品)을 챙겨서, 진두선창→신당리→성화당→분지천→고유지→공마루→상동→왕좌재→긴장골→셋터마을→용두고개→용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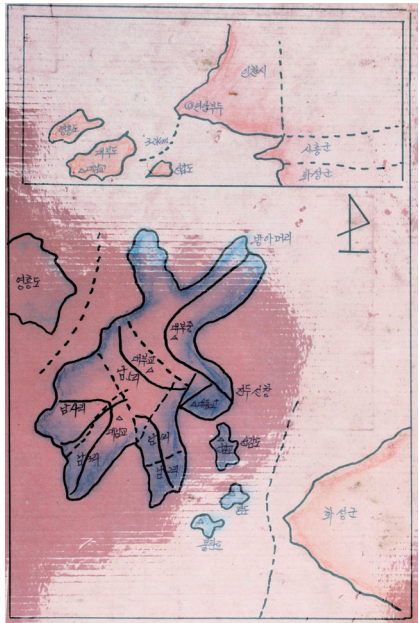
→대남초등학교까지 2시간(7km)이상을 걸어야 도착한다. 이때 대남초등학교에 근무한 총각 선생님들이 겪어야 할 일상(日常)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3월 첫 발령을 받아 대남초등학교에 와서 육지에 다녀오려면 2시간을 걸어가서, 배 타기를 2~3시간, 뱃멀미는 무섭지, 바람이 불거나 안개가 심하면 동력목선(動力木船)이 운항하지 않으니, 방학이 아니면 육지의 집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인천에 도착해서 서울 집에 가려면 하루에 몇 대밖에 없는 화물열차(貨物列車)에 달린 객차(客車)를 타고 가면 또 하루해가 저문다. 경기도 다른 곳이 집인 선생님들은 화성군(華城郡) 마산포(馬山浦)에 내려 사강(松山)까지 걸어가 하루에 몇 대밖에 없는 버스를 타고 수원(水原)에 도착해 서울이나 고향집으로 갔다고 한다. 육지(陸地)에 도착해서도 왕복(往復) 이틀이나 걸리니 선생님들은 발령받은 지 1년이 되는 2월 말이면 섬을 벗어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1960~70년대 대남초등학교 앨범의 학구도(學區圖)에 대부도 진두 선

창에서 32km 인천 연안부두(沿岸埠頭)와 화성·시흥이 보인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인천항과 화성시를 통하여 인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여러 지역으로 오갔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선생님들이 얼마나 육지의 고향 집이 그리웠으면 화성과 시흥 그리고 인천까지 학구도에 그려 넣어 ‘철새 따라왔다가 철새처럼 육지 학교로 가고 싶었는지’ 짐작이 가고 남는다.



1960~70년대 철새따라 찾아온 총각선생님 대남초등학교 학구도

데스크 칼럼

어버이날, 영원한 효도의 시작



김태창
편집국장

어버이날을 맞아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마을 통장과 부녀회 및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함께 모여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다.

마을마다 점심 대접과 선물 전달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기념 행사는 단순한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항상 어버이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주 부모님을 찾아 뵙고 어르신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효도가 된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화가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과 위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어머님 은혜’ 노래 가사를 함께 떠올리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어머님은 해 그 무한한 사랑/ 내 어린 날에 받든 사랑을/ 이제와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다 보답 못해/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어머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가사는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어버이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항상 효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작은 전화 한 통화가, 작은 선물이, 작은 대접이

모여 큰 효도가 된다.

대부도는 아직도 시골스럽다. 정겨운 고향의 맛이 곳곳에 배어 있는 곳이다. 지금도 선주민들은 안산시 대부동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옹진군 대부면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다.

행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시골스럽게 한다. 옛 마을별로 어버이날 행사를 한다. 경로당별로 하는게 가장 쉽게 편해서 인 듯 대부도에 있는 22곳의 경로당에서 일제히 어버이날 행사를 했다.

일부는 8일이 아닌 7일 날 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8일 날 진행했다.

진수성찬으로 점심을 준비하고 식사와 여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들고 갈 수 있도록 타올 등 기념품도 준비했다.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도착하는 대로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가볍게 여흥을 즐기고 돌아갔다.

마을의 통장과 부녀회가 점심을 준비하고 후원을 받아 노래방기기도 준비했다. 경로당 앞마당에서는 “풍악을 울려라”하는 함성과 함께 구성된 어르신들의 트롯노래들이 마을에 울려 퍼졌다.

“못 하는 노래지만 한 곡 해볼까” 모두가 가수였고 모두가 방청객이었다.

동네 어르신과 이웃마을의 활동가들이 후원금을 들고 행사장을 찾고 함께 식사하고 노래하며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이 경겨운 시골모습이다.

모두가 선·후배고 모두가 친·인척이며 모두가 이웃사촌인 마을, 대부도의 모습이다.

“인천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왔어.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그러면서 통장으로 용돈도 보냈지 뭐야.” 아들 자랑은 행사장에서도 계속됐다.

우리 모두가 항상 어버이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기원해본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부도저널 직원 모집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편집국 기자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대학(2.3년)졸업 이상 기 타 : 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광고/사업국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고졸이상 기 타 : 1.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2.차량소지자 우대
영상제작편집국	0명	경력사항 : 경력자(영상 제작 편집 가능자) 학력사항 : 학력 무관 기 타 : 유튜브 제작 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

○ 제출기간 : 채용시까지

○ 대우 : 4대보험 가입, 급여는 연봉 협의 후 결정

○ 제출처 :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서류제출은 직접 내방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대부도저널(주) 총무국 ☎ 032-880-9994



대부도펜션타운

365일 예약센터 운영
T. 1588-1934

About

대부도 펜션타운

emart24

이마트24

숙, 불판과 다양한
먹거리, 생필품, 폭죽, 얼음, 여행 준비물 등
없는거 빼고 다 있는 단지 내 이마트24

이디야 커피

바다전망의 쾌적한 이디야 커피 입점

인조잔디 풋살장

가로20M 세로40M 정식 인조잔디 풋살장 완비
운동회 및 각종 야외행사 진행도 가능하며,
필요한 각종 용품은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

세미나실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한 빅프로젝터,
중앙강연대, 정수기, 화장실 등 쾌적한
워크샵 환경을 위한 세미나실 완비

배달BBQ

펜션 전용 바비큐장에서 열리는
바비큐 파티가 전화 한통이면 OK!
펜션으로 바비큐 세트를 배달해드립니다!

국내최대, 국내 최초
대부도 대표 풀빌라 펜션단지!

Daebudo Pension Town

대표 양 운영